불교&무해력
불교, 무해력에 주목하라

고자극에 지친 사람들, 무해함에 매료되다

無비판 · 스트레스 아이템 매료
귀여운 불교 굿즈, 박람회 완판

착한 공동체와 연대 보여줬던
'폭싹 속았수다'도 무해 콘텐츠

호감도 높은 불교, '무해력'도 ↑
'불교적 무해력' 알리기 나서야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게 개최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청년들이 목탁을 직접 쳐보고 있다. 사진=서울국제불교박람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4월 5일 오후에 찾은 서울 강남 코엑스 C홀. 이곳에서는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한창이었다. 박람회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장 많은 줄을 서 있는 곳은 불교 굿즈를 판매하던 업체들이었다. 작은 소품부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까지, '와! 이런 것이 MZ감성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제품들에 눈길이 쏠렸다. 실제 작고 귀여운 MZ감성의 불교 굿즈들은 박람회 기간 완판 행렬을 이어갔고,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가 이어졌다.

조계종과 박람회 운영사무국에 따르면 박람회 30일 전에도 사전등록자만 4만 명을 넘었고, 실제 박람회장을 찾은 사람은 연인원 20만 명에 달했다. 개막일인 평일부터 연일 개장 이전 대기줄이 이어졌고, 주말에는 폐장 직전까지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이 있었다. 행사장 수용 한도를 넘는 관람객이 몰리면서 입장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관람객들도 발생했다.

이 같은 박람회의 인기를 견인한 것은 단연 MZ세대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 중 73%가 20~30대였기 때문이다.

MZ세대가 작고 귀여운 불교 굿즈에 열광하는 것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무해력(無害力)' 트렌드와 연결된다. 실제, 귀엽고 앙증맞은 인형으로 구성된 '키링'은 MZ세대의 가방을 점령했고 서툰 말씨와 대충 그린 이모티콘이 더 사랑받는 현상도 '무해력'이 자리한다.


'폭싹 속았수다' 한 장면. '무해력' 콘텐츠의 전형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판매된 불교 굿즈.

올해 상반기 최고의 드라마로 평가받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무해력' 콘텐츠의 전형이다. 착한 남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착한 연대는 드라마의 서사를 이끌었다. 심지어 드라마 최대 악역 '학씨 아저씨' 부상길(최대훈 분)도 다른 드라마에 비하면 순하디 순한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 방영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MBC)' '그놈은 흑염룡(tvN)' '감자연구소(tvN)' '언젠가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tvN)' 등도 긴장감 없이 편하게 웃으며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도파민을 자극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소위 '발암' 드라마들과는 차이가 있다.

대중들이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도 저자극 '무해력' 트렌드가 인기다. 일류 격투기 선수에서 유튜버로 변신한 추성훈 씨를 요리 먹방 MC로 내세운 넷플릭스의 '추라이 추라이', 공중파 방송에서 폐지 후 넷플릭스로 옮겨 사랑받고 있는 '도라이버:잃어버린 나사를 찾아서(구 홍김동전)', 지중해 뱃길을 따라 유럽 도시를 여행하며 인문·과학·건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알쓸별잡:지중해' 등은 '무해력' 트렌드가 반영된 것들이다.

'무해력'의 부상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를 둘러쌓고 있는 상황들이 유해하다는 이야기다. 올해의 트렌드로 '무해력'을 예고한 〈트렌드 코리아 2025〉는 "무해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귀엽거나 예뻐서가 아니다. 경제 불황과 불안한 미래, 날로 심해지는 정치·사회적 갈등, 코로나 블루(우울)에 이은 코로나 레드(분노)에 지친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긁힌 세대'라고 부르며 자조한다"면서 "이러한 암울한 반작용에서 귀엽고 순수하고 단순한, 해(害)가 없는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자극 시대에 역설적으로 무해함이 강조된다는 사실은 무해력은 단순히 귀여운 디자인을 넘어 살아남은 생존의 비결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 역시 자유롭지 않다. 대중적인 호감도와 이미지가 해당 종교의 포교와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행히 불교는 대중도가 높은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종교인식조사'에 따르면 불교의 호감도가 51.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진 호감도는 가톨릭(48.6)과 개신교(35.6), 원불교(28.0), 이슬람교(16.3) 순이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의 불살생과 같은 비폭력주의, 모든 것이 연결됐다고 보는 연기법도 최근 부각되는 '무해력'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면서 "이제는 '무해력'이라는 트렌드를 통해 불교를 재해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적 무해력'의 구현은 현시대에 필요한 과제다. 전법포교 방향 중 하나로 '선한 영향력의 확장'에 두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십선계를 활용한 '십선 운동'을 통해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며 선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교적 무해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불교가 무해력 있는 종교임을 스스로 대중에게 어필한 적은 없다. 단순히 기독교의 공격적 선교에 대해서만 비판해왔다"며 "이제는 불교가 갖고 있는 무해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포지티브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중적으로 불교 이미지가 왜곡돼 소비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 아이돌 출신 배우가 목탁을 불교 굿즈로 소개하고 목탁을 땅에 내려놓고 치는 장면이 나왔다"면서 "방송 특성상 불교 법구를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접하게 하는 것과 법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의 딜레마는 있다. 트렌드에 맞추면서도 불교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디어 속 불교적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불교 콘텐츠를 가공·확대하는 종단적 미디어 대응 부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장 여산정여 대종사
주 지 산해정오
신도회장 이윤희

금정총림 사부대중 일동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www.beomeo.kr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051-508-3122